

# 격포 관광숙박시설 건립 211억원 투자

### 전북도-부안군-대일변산관광개발, 휴양콘도미니엄 건립 투자협약... 2025년까지 건립·34명 신규 고용 창출

대일변산관광개발(주) 전북도에 211억 원의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투자를 결정했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7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일변산관광개발(주) 김호석 대표와 관광숙박시설(격포 휴양콘도미니엄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은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격포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내) 2만740㎡ 부지에 211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지상 5층, 48개 객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34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으로 대일변산관광개발(주)은 전북도민 우선 채용 및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등록, 회의 유치 등 전북도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전북도는 투자 완료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일변산관광개발(주)은 이번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시작으로 격포지구 관광개발을 지속 추진, 체류형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7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일변산관광개발(주) 김호석 대표와 관광숙박시설(격포 휴양콘도미니엄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관광사업 투자협약은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전

북도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산업 분야에 참으로 단비같이 반가운 소식

이며, 전북도에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청정전북, 구제역 방역 '이상 無'

### 양돈 밀집단지 일제 검사결과 항체 양성률 92.9% 지난 2017년 2월 발생 이후 도내에서 발생 無

도내 양돈 밀집단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높은 항체 양성률을 나타내며, 구제역 없는 청정전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전북도는 지난 5월 도내 양돈 밀집단지에서 실시한 일제 검사결과 92.9%의 높은 항체 양성률과 함께 감염 항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7년 2월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도내 양돈 밀집단지는 모두 7개 소로 양돈농가의 21%인 152호가 사육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예방백신 구입비 91억 원을 지원해 1차 8주령, 4주 후

에 2차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검사는 항체 양성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60% 미만 항체 저조 농가의 관리 결과, 양돈 밀집단지 농가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실시됐다.

최근 3년간 월별 항체 변동추이를 분석해 지난 4월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5월 17일부터 3주간 검사를 실시했다.

일제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은 92.9%로 지난해 양성률보다 4.1% 향상됐고, 감염 항체는 검출되지 않아 구제역 방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합동 세미나 개최

### 지원사업 추진 사항 점검·마을미디어 전문가 육성 방안 등 논의

전북도와 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7일 완주소셜굿즈센터 세미나실에서 전북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중요성 및 농촌마을미디어 역할과 향후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 등을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마을공동체위원회, 전북미디어단체(전주시미디어센터, 전북미디어연립,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네트워크),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여, 3시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각각 추진해오던 마을미디어 사업을 서로 협력·상생을 통해 추진하자는 목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21년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추진 사항 점검, 생생마을 대학을 통해 육성된 마을미디어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및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개최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도시지역 마을미디어의 장점인 전문인력, 미디어 장비 등을 적극 교류해, 그간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농촌지역의 풍부한 지역 자원 및 정보를 도시지역 미디어 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전북도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자 약

속했다. 주제 발표로는 '전북마을미디어 네트워크의 중요성 및 방향성'(순주화 사무처장, 전북미디어연립연합), '농촌마을미디어의 특징과 미래의 역할'(이관배사무국장,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 발표됐고,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에 관한 활기찬 토론도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미디어 단체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시와 농촌지역의 마을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의제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충분했다"고 말했다.

시·군 마을만들기 농촌활동가는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향후 도시지역 미디어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사업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 지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공동사업으로, 도농융합상생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며 "앞으로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공동 협력을 위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지역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 모기 확인

### 도 보건환경연구원, 예방접종·모기 회피·방제요령 준수 당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 이하 연구원)은 6월 첫째 주 모기채집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올해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뇌염 유행예방을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주 2회 전주 소재 우

사에 유문등(모기 유인등)을 설치, 모기종별 밀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채집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종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3월 22일 제주 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첫 발견돼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일본뇌염 환자 발생 등의 경우에 발령되는 일본뇌염 경보는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

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택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북지역에서 올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모기 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하고, 아동의 경우 표준일정에 맞춰,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면역력이 없고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은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장마 대비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

전북도는 올해 장마가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관리에 철저지 기해주시기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6월 19일에 시작해 7월 26일(약 3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기간 국지적인 집중호우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여름철 재해대비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 관리 요령'을 시·군에 통보해 계도에 나서는 등 농가의 실천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우선 재해 취약 지역 리스트 및 일자형 지주시설 설치현황 등을 파악해 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오 한다고 강조했다.

벼농사의 경우 논 주위 배수구를 정

비에 농업용수가 원활히 흐르도록 하고,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되 비닐 등으로 피복해 붕괴를 방지해야 한다.

원예작물 시설하우스는 지주시설 및 방풍망, 배수로, 유실 우려가 있는 경사지 피복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침수가 됐다면 배수 후 즉시 역병, 탄저병 등 긴급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요소 0.2%액을 5~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야 한다.

과수는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강풍으

로 과실 낙과 및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를 세워 고정시켜 줘야 한다.

비가 그친 후 토양이 유실된 과원은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흙을 채워주고 겸부늬썩음병, 점무늬나염병 등 병충해 방제가 필요하다.

장마철 농기계 보관은 오물과 습기를 제거한 후 기름칠해 통풍이 잘 되고, 비를 맞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주어야 한다. 장마가 끝나면 사동을 바로 갈지 말고 물로 깨끗이 닦고 습기를 제거한 후, 기름칠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사용한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